

# 5G 중간요금제 확대...시니어 요금제 신설

### SKT, 24~110GB 구간 4중 추가 청년요금제 데이터 최대 50% 늘려 5G요금제 20종→45종으로 확대

SK텔레콤이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촘촘히 한 중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시니어(고령층) 5G 요금제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23일 5G 데이터 월 이용량 24GB(7기가바이트)~110GB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해 5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4GB 사용에 월 5만9천 원이던 '베이지 플러스' 요금에서 3000원, 5000원, 7000원, 9000원을 각각 추가하면 13GB, 30GB, 50GB, 75GB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50GB 정도인 가입자라면 월 6만4000원에 54GB(24GB+30GB)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에만 일회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매월 자동 선택할 수도 있다. 일회성 적용이 아닌 경우 선택 약정 할인

이나 결합 할인 혜택이 합산 요금 기준으로 일반 요금제와 똑같이 적용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0 청년 요금제' 11종을 신설해 6월 1일 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약 30% 싼 요금이 적용된다.

청년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50%까지 늘렸다. 또 학생 등 청년층 가입자가 많이 쓰는 타 이용자와 공유 데이터, 다른 기기와 함께 쓰는 테더링 데이터를 최대 20GB까지 더 제공한다.

청년 요금제에는 월 4만3천원에 6GB를 쓰는 구간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출시된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중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요금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5만9000원인 청년59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6만 원대 구간처럼 기본 제공량 36GB에 추가 금액 3000~9000원을 내고 데이터를 15~100GB 총 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요금제에는 젊은 층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커피전문점·영화관 할인이나 로밍 요금제 할인 혜택도 추가됐다.

SK텔레콤은 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 34세 이하 가입자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4만 원대 신규 요금제 3종을 이달 30일 내놓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향을 감안해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 65세 이상), 월 4만4000원에 9GB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000원에 8GB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으로 구성했다.

SK텔레콤 요금제 신고를 수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요금제가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졌다"며 "월 사용량이 24~110GB 사이라면 신설 요금제로 월 최대 7천 원까지 통신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만 19~34세 이용자는 청년 요금제로 월 최대 1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여가 활동과 관련한 부가 혜택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립뉴스

# 국립광주과학관, 광주 선명학교 학생 초청 행사

## 1분기 휴관일 맞아 스페이스 360·로봇 댄스공연 등 활동



로봇물고기를 관찰하는 학생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7일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후원회장 김홍균·남산산업 회장)와 함께 광주 선명학교 중학생과 교사 100여명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2023년 1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초청행사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소재 특수학교 및 다문화학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 결과 광주 선명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과학관으로 초청된 학생들은 과학관 직원들과 함께 상설전시관, 특수영상관 스페이스 360, 로봇 댄스공연 등을 관람하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대호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직무대리는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와 함께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에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분기별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과학관', '사이언스 캠프' 등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탈출한 세로의 꿈을 이뤄주자'



세로 패러디 이미지

### 동물원 탈출 얼룩말 패러디 붐물 AI 이미지 하루 만에 1250여건

최근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불잡힌 얼룩말 '세로'에게 연민을 느낀 누리꾼들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세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화제다.

AI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은 이미지 생성 워크플로 웹 플랫폼 '스포키' 이용자들이 세로 탈출 소동 하루 만에 1천250여 건의 관련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19년생인 수컷 얼룩말 세로는 앞서 지난 23

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우리 주변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부수고 탈출해 차도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포획됐다. 세로는 부모를 잇따라 잃고 축사에 홀로 남아 외로움을 타며 반항을 시작했다고 대공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탈출한 세로의 꿈을 이뤄주자'며 패러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미지는 세로가 두 발로 우뚝 선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 등 다양하다.

이들 이미지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라이언로켓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다양한 패러디를 만드는 등 생성 AI가 이미 일상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포키는 지난 8일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14만여건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연립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전남지방우정청, 노후 우체국 새롭게 탈바꿈

여수 봉산동우체국·무안 운남우체국·함평 손불우체국 등 6곳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송관호)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우정사업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지 40년이 넘는 노후 우체국을 재건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마량우체국 신청사 조감도

재건축 대상은 여수 봉산동우체국, 강진 마량우체국, 고흥 풍양우체국, 소록우체국, 무안 운남우체국, 함평 손불우체국 등 총 6곳이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재건축 기간 동안 면 소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우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 4월부터 12월(예정)까지 임시청사를 운영한다.

올해 재건축되는 우체국은 12월경 완공 예정으로, 지역별 특색 반영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인증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시공되어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4대 은행인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고 우체국에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형 서비스를 하고 있어 4대 은행이 없는 면 소재 지역주민에게도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송관호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우체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청사를 설치해 기존 우체국과 동일한 우정서비스(우편접수, 우편배달, 예금, 보험 등)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우체국을 만들어 농가소득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자산과 건강을 책임지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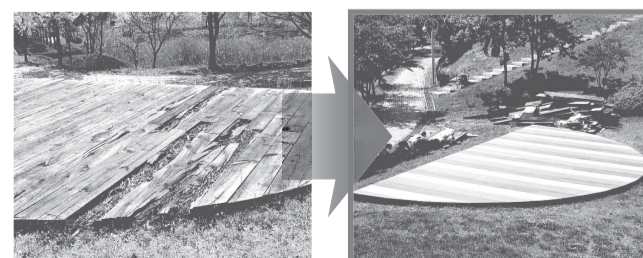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